

국감 나가라 지역구 챙기라 ... 국회의원들 '바쁘다 바빠'

차기 총선 앞두고 권리당원 확보 등 바닥 다지기 돌입 민주당 '일당독점' 민심 냉랭...산행 등 접촉면 넓히기 분주

지역 정치권이 차기 총선을 앞두고 분주해지고 있다. 당장,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차기 총선 입지자들도 경선을 대비해 권리당원 확보에 나서는 등 바닥 다지기에 돌입한 모습이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와 정당대회를 통해 나타난 민주당에 대한 냉랭한 지역 민심은 차기 총선에서 정치 지형을 뒤바꿀 거대한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지역 정치권의 저변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코로나 19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그동안 미뤄졌던 가을 산행 등 각종 행사들이 잇달아 열리면서 차기 총선에 대비, 민심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한 지역 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지역구에 머무르며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코로나 19 거리두기 완화 이전에는 주말 일정이 3~4개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10여개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국감 시즌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은 차기 총선에 대비, 조직을 총가동해 권리당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차기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 8월까지의 충분한 권리당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호남이 민주당 독점 구도인데다 지역 민심이 냉랭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차기 총선에서 개혁 공천을 명분으로 '호남 물갈이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사고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원천적인 경선 배제가 이뤄지기 어려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도 권리당원 확보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광주지역 모 국회의원은 "지역 민심이 냉랭하다는 점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국정감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충분한 권리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 총선 입지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정중동 행보를 보여 왔던 이들은 각종 행사에 얼굴을 비치며 출마할 지역구를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그동안 광주를 중심으로 차기 총선 입지자들이 거론됐지만 점차 전남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 입지자들은 권리당원 확보 등 바닥 다지기에 나서는 한편, 지역 민심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차기 총

선 입지자들의 행보가 정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권료 출신 입지자들은 아직도 출마 지역구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은 현역 국회의원 지역구로 총선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몰리는 흐름도 보이고 있다. 차기 총선에 나설 모 인사는 "아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지만 민주당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올해 내에 출마 지역구를 정하고 권리당원에 모집에도 나설 생각"이라며 "현역 국회의원의 조직력 등 기록권을 있지만 결국 민심의 흐름이 총선 공천의 향배를 정할 것으로 보고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정부는 민생 살리기 몰두하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장 등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의도 브리핑

“아동성범죄 작가 저작물 아무 제약없이 노출”

이병훈 의원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작가의 저작물에 대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열람 제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동남) 의원이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등록된 아동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은 총 132건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산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2016년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작년 5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한모씨의 작품이다. 한모씨의 책들은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도서검색에 아무런 제약없이 노출되고 있다. 열람예약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지 미성년자가 열람하는

경우,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조치일뿐 아동성범죄 전례 작가로 인한 보호조치는 아니다. 보호자도 열람예약시 해당 도서가 아동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인지 알 길이 없는 것이다. 이병훈 의원은 “도서검색 결과에 최소한의 범죄 정보라도 명시하는 등의 보호자를 포함한 이용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정서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성범죄 작가의 저작물들을 찾아내고 어린이와 청소년들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정부, 야당 탄압·정치 보복에만 몰두”

민주당 최고위...“국가위기 극복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자”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총력을 다 해도 부족할 시점에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소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오늘이 마침 10월 유신 쿠데타 날인데,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을 팽개치고 정치적인 탄압에 소진하는 것은 권력 본래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민생을 정부가, 정치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가 경제는 시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태도로 ‘오블관안’(吾不關焉 어떤 일에 상관하지 않고 모든 책임)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할 일은 없다.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 약을 먹기보다는 고름이 끓어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라는 태도를 취하면 더 큰 고통, 더 큰 위기가 도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예산·입법 국회가 시작된다”며 “민생 경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민생 해결과 국가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선 “민주당은 거듭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라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 간 신뢰를 훼손하는 모든 형태의 도발 중단을 북한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는 어떤 이유로도 약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남북 관계가 적대적 공생 관계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유휴지에 사료작물 재배해 수입의존도 낮춰야”

서삼석 의원, 국감서 지적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료자급 제고 측면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간척지 유휴지에 가축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이하 공사)를 상대로 “국민 1인당 육류소비비는 쌀과 버금갈 정도로 축산업은 농업분야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2020년 국민 1인당 소비량은 주식인 쌀이 57.7kg인데 비해 육류는 52.5kg에 달한다. 축산업 생

산액도 급격히 늘어 2000년 전체농업생산액의 25%인 8.1조원에서 2019년 40%인 19.8조원까지 금액으로는 2.4배 비율로는 15p가 증가했다. 한국 농어업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의 생산·시장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옥수수, 콩 등 배합사료 자급률은 25%에 불과하다. 그나마 조사료 자급률이 82%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종자의 해외 의존이 커서 수입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피해가 국내 축산 농가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기문도 1시간20분

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차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승선문의 예약센터
삼도해운, 플래티늄 061-834-3434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